

CR 2004 - 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2004. 10

보 험 개 발 원

CR 2004 - 12

CEO  
Report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2004. 10

이 기 형 · 김 해 식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여, 보험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 요약 >

-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부채에도 장부가격이 아니라 보고시점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보고체계(mark-to-market reporting)임
  - 대차대조표가 작성될 때마다 자산은 물론 부채의 시장가치가 측정되어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새롭게 확정되고, 그에 따른 전기 대비 당기 증감이 수익과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구조.
  - 새 회계기준이 현재와 크게 다른 점은 보험상품의 위험율과 이자율 등 기초율들이 고정되지 않고 매기마다 변경된다는 것임.
  - 따라서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인식되어 오던 보험판매 손익의 대부분이 새로운 기준에서는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고 이연신계약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 새로운 기준에 따를 경우 나타나게 될 단기 변동에 대해 해외 글로벌 보험사 CEO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보험사 CEO들은 단기형 외부보고체계로의 변화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내부보고체계에도 영향을 주어 보험사 재무성과의 추세와 향후 이익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봄.
  - 따라서 장기의 보장성 보험보다는 단기의 실적배당형 보험의 판매가 선호될 것이어서, 보험의 장기보장 특성과 리스크전가 기능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CEO들의 반응임.
-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 목 차 >

I. 검토배경 .....	1
II.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	2
III. 보험사 CEO들의 인식 .....	4
IV. CEO들의 인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8
<b>【별첨1】</b>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과 향후 일정 ...	12
<b>【별첨2】</b> 용어 해설 .....	13
<b>【별첨3】</b> 제네바학회 설문조사 .....	14

# 1. 검토 배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4년 3월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 (IFRS 4), 보험계약」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최초의 단일 보험회계기준임.
- IASB는 공정가치(fair value)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회계기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회계기준의 범주 안에서 보험사 부채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보험회계기준의 제정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음.
- 보험회계기준의 내용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을 상품설계 당시의 원가 대신 매기말의 공정가치 내지 시장가치로 표시한다는 것임.
-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실정임
- 그 이유는 보험사 준비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거센 반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임.
- 이에 IASB는 2005년 유럽공동체 적용을 위해 IFRS 4를 우선 제정하고, 그동안의 논의와 현장실사를 기초로 구체적인 보험부채 측정기준을 마련한 후 IFRS 4를 추후 개정한다는 수정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여기에서는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보험사 CEO들의 인식을 통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자 함.
- 끝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긍정적 측면도 살펴봄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향후 전망과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II.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 1. 보험사 책임준비금을 공정가치로 측정

- 책임준비금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에 반영되어 있는 사망률, 질병율, 이자율 등 상품설계시 예정된 기초율들을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의 기초율들로 갱신한다는 것임.
  - 여기서 공정가치란 자발적인 거래의사를 지닌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조건(*arm's length rule*)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의미함.
    -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치(*market value*)는 공정가치의 요건을 만족하기에 공정가치 대신에 시장가치라는 표현이 보다 많이 쓰임.
  - 결국, 책임준비금은 매기마다 시장가치에 따라(*mark-to-market*) 책임준비금의 가치를 대차대조표에 새롭게 표시되는 것임.
- 그러나 보험시장은 재보험 거래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을 사고파는 거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시장(*thin market*)임.
  - 따라서 부채의 가치 측정을 위해 시장에서 결정된 기초율들을 구하는 것은 어려움.
  - 이에 IASB는 시장가치의 사용(*published price quotation*) 대신 보험사별로 현재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초율들(*entity-specific values*)과 적절한 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시장가치를 추정할 것을 제안함.

## 2.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변화

- 보험사의 자산은 국제금융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고 부채는 국제보험회계 기준의 적용을 받아 대차대조표 양변 모두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것임.

공정가치 구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	부채	수익 또는 비용
보험	금융회계기준 적용	보험회계기준 적용*	자산과 부채의 변동
은행 등	(공정가치)	금융회계기준 적용	

- 따라서 보험사의 대차대조표는 현재와 달리 자산과 부채가 모두 매기마다 갱신되고, 전기와 비교하여 당기의 자산과 부채가 늘거나 줄어든 만큼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서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함.
- 보험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현재와 달리 변동성이 커짐.
  -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로 유지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여러 기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하여 왔고, 그 조정 장치로서 미경과보험료적립금과 보험료결손금 등의 제도를 운용해왔음.
  - 그러나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보험료결손금을 따로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연신계약비도 필요하지 않게 됨.
    - 또한, 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도 보험회계상의 준비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결국, 당기 자산과 부채의 증감이 그대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새로운 체제에서는 현재와 비교하여 이익의 변동성이 커지게 됨.

### III. 보험사 CEO들의 인식<sup>1)</sup>

#### 1. 보험상품과 자산운용의 미래

##### 가. 실적배당형 / 단기형 보험상품의 대두

- 생명보험에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향후 생명보험의 상품운용이 장기에서 단기 위주로 전환될 것임.
  - 장기상품보다는 단기의 보장성 및 저축성 상품이 대두될 것이고, 배당형 상품보다는 투자형 상품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상품에서 제공하는 옵션 및 보증 비용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손익계산서의 이익 변동성을 더욱 크게 할 것이므로 배당부 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줄어들 것임.
- 손해보험사의 경우 **long-tail** 종목과 대재해리스크 인수 등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임.
  - 보험금 지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종목(long-tail business)들인 배상책임, 상해와 질병, 근재보험에 대한 판매유인이 줄어들 것임.
    - 이는 손익계산서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손해보험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큼.
  - 한편, 재물보험의 대재해리스크(catastrophe risks)의 인수나 금융재보험(financial reinsurance)의 활용도 감소될 것임.
    - 비상위험준비금 등 관련 준비금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등 리스크에 시장 가치를 부여하는데 따르는 불확실성이 커져 재무제표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므로 대재해리스크 인수 유인이 줄어들 것임.

1) [별첨]에 소개된 '제네바학회의 보험사 CEO 설문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됨.

- 또한 준비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게 되면, 손해보험사가 시장에서 가격 인하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통용되고 있는 금융재보험 상품의 매력도 크게 감소될 것임.
-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왔던 각종 보증과 옵션들은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보증과 옵션 요소들을 줄인 신상품 공급이 늘어날 것임.

#### 나. 단기채권 위주의 자산운용

-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투자 기간이 짧아질 것임.
  - 보험사 최고경영진들의 경우 주식 투자에 따른 변동성보다 손익계산서의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 지분투자에서 채권투자로, 다시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투자로 자산의 재배분이 예상되나, 이는 생명보험사의 자산-부채 대응에 제약이 될 것임.
    - 결국, 생명보험사 유배당계약자에게는 장기적 수익률 하락으로, 손해보험사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상승으로 나타날 것임.
  - 생명보험사들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대응을 강화하여, 결국 보수적인 투자와 낮은 투자수익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투자정책의 변화는 보험상품의 변화를 수반할 것이며, 보험상품의 듀레이션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사들 역시 듀레이션의 단기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주식투자에 대한 제약이 커질 것이고, 이에 단기채권으로 전환할 것임.
    - 이 경우 생명보험과 달리 이자율 보증이 없으므로 단기채권으로의 전환은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 2. 리스크관리와 재무관리

### 가. 장기계약의 리스크관리에 부담

- 최근 기업지배구조 요건 강화, 내부통제의 수준에 대한 감독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자산-부채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화되고 있음.
- 리스크관리 체계는 다음 두 가지의 요소를 만족하여야 함.
  - ① 첫째 요건은 자산의 측정과 부채의 측정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그 잔여지분인 자본의 측정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
  - ② 두 번째 요건은 측정체계가 경영 의사결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보험경영의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장기(long term)' 대신 국제 회계기준은 '단기(short term)'를 중시하는 점에서 리스크관리에 부담.
  - 실제로 대다수 보험사들의 리스크관리체계는 장기계약을 반영하면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리스크관리가 현실적 관심사인 생명보험사에게 공정가치회계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나. 이익 변동성 증대로 자본조달비용은 상승

- 공정가치회계는 이익예측을 현재보다 더 어렵게 할 것임.
- 공정가치회계에서 이익의 예측은 자본의 변동으로 정의됨.
  - 기간별 자본의 변동은 금융자산의 시장가치 또는 추정시장가치와 보험부채의 추정시장가치에 근거하고 있음.
  - 이익은 투자자산의 처분손익은 물론 평가손익을 모두 포함하며, 보험부채의 미실현 추정손익까지도 포함하고 있음.

- 이익예측이 어려워지면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배당정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이익이 현금흐름과 직결되지 않음으로써 이익이 계약자배당정책의 건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임.
  
- 성장률이 동일할 경우 현실에서는 이익의 변동성이 큰 기업에게 더 높은 자본조달비용을 요구하고 있음.
  - 자본시장에서는 보고이익의 변동성이 커지면 추가적인 리스크마진을 요구하므로 이는 보다 낮은 주가와 보다 높은 자본조달비용을 초래함.
  
  - 그러나 장기계약인 보험의 특성에 비추어 보고이익의 상당부분은 의미가 없는 정보, 즉 적정 신호가 아닌 잡음(noise)일 수도 있음.
    - 따라서 보험사가 자본을 추가하여야 한다면,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보험원가의 상승으로 나타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원가를 인상하는 것은 대체상품 때문에 쉽지 않아 경제 전체적인 보험공급 능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체리스크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나 자가보험(self insurance) 등 보험 대체상품의 존재는 보험원가 상승에 제약요인이 될 것임.

#### 다. 새로운 회계시스템 구축비용

-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4~5%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며, 기존 시스템과의 병존 기간이 길수록 비용은 최소한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전환비용으로는 전체 경상비용 대비 생명보험은 평균 5%, 손해보험은 평균 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 보험사 수준으로 보면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IV. CEO들의 인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1. 보험사 CEO들의 인식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 대다수 보험사 CEO들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있음
-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보험사가 당면하고 있는 리스크(risk)와 리스크를 상쇄할 자본(capital), 여기서 기대되는 보상(return) 체계를 반영함.
  - 성공적인 보험사는 회계기준이나 건전성 규제와 관계없이 강력한 브랜드, 활발한 고객서비스 문화와 효율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재무관리의 세 요소들인 리스크 및 자본과 보상 체계를 기초로 함.
  - 이런 관점에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이 책임준비금을 현실적인 현금흐름에 기초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제보험회계기준은 가치창출 보고에서 이해관계자들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음(< 표 1 > 참조).

< 표 1 > 보험사업에 대한 분야별 정보 격차 정도

전략	고객 및 시장	인력 및 명성	리스크관리	재무상태	재무성과
상품혁신	고객유지	경영의 질	시장리스크노출	자본관리	경제적 이익
IT 지출	고객침투	브랜드 지분	리스크관리관행	자산·부채 모형화	위험조정자본 이익률
	시장점유율		자산의 질	자본적정성	사업부별 성과
	시장성장			내재가치	

주: 굵은 글씨체는 40% 이상, 이탤릭체는 30% 이상, 나머지는 20% 이상의 정보격차가 있음을 의미함.

자료: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Waking up to IAS', March 2002.

- 따라서 국제보험회계기준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제Ⅲ장에서 언급된 대다수 보험사 CEO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CEO들은 국제보험회계기준으로 인하여 보험사들은 실적형 상품 개발과 판매, 그리고 단기 채권투자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해 **주식이 채권을 상회하는 실적은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지금도 이런 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단기투자의 본질적 원인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음.
  
- 향후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공정가치 기조가 변화하거나 공정가치 표시 대신 주석 공시만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보험권에서는 **보험부채를 만기보유(held-to-maturity)증권이나 중도매각가능(available-for-sale)증권과 동일하게 다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sup>2)</sup>
    - 다른 한편으로는 재무제표를 직접 고치는 대신 그 효과를 주석으로 공시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기도 함.
  - 그러나 현재 제시된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모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대전제 아래** 진행되고 있는 금융회계의 한 축으로서 제시되고 있기에 공정가치를 기조로 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내용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오히려 **장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책임준비금 평가를 중심으로 세계 회계기준의 양대 산맥인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의 수렴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전망되고 있음.**
    - 지급능력제도 역시 이와 관련하여 접점이 모색되고 있음.

2)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원가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도매각가능증권은 평가는 하되 대차대조표에만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는 처분할 경우에만 반영하는 시장가치법이 적용되고 있음.

## 2.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보험사는 상품설계 단계부터 브랜드와 판매채널에 투입한 자본과 인수한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정도로 수익성 목표를 설정해야 함.
  - 국제보험회계기준은 크게 두 단계의 가치 보고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계약이며 다른 하나는 보유계약에 대한 것임.
  - 국제보험회계기준은 신계약의 현실적인 이익 평가를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신계약이 보험사의 수익성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 보험사는 기존 보유계약에 내재된 비용과 리스크 감소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국제보험회계기준은 보험상품에 내재된 보증이나 옵션을 보험사의 가치를 차감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따라서 이율보증이나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 부리이율과 같은 보증 비용에 대한 충당 압력이 강화될 것이며, 장수리스크 등으로 상당한 마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으로 인해 마진 책정은 더욱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보험사로서는 보증이 거의 없고 자본비용과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형 및 변액 보험상품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란 CEO들의 예측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 보유계약은 실제 현금흐름이 예상했던 현금흐름과 차이가 있거나, 미래 예상의 변화로 인하여 준비금의 수정이 필요해진 경우 가치가 달라짐.
    - 이는 경영진이 리스크를 통제하는 능력에 따라 보험성과도 달라질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재보험이나 증권화 전략을 통한 리스크 감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수록 리스크관리 강화에 대한 니드는 더욱 커질 것임.

- 보험사는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사의 진정한 실적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보험계약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나, 이를 보증하거나 설명해 줄 제3자로서의 외부감사인, 보험계리사, 감독기관 등과 장기적 유대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장분석, 재무분석가, 감독기관 등에게 과거와 달리 국제보험회계 기준 체제에서는 특정 상품의 손익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미리 경고하는 등의 교육도 필요할 것임.
- 한편, 상대적으로 투자자와 계약자, 이들을 대신하는 시장기구 등에 의한 시장규율이 미흡한 국내 보험시장의 특성상 앞에서 언급된 변화들 중 일부 변화는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임
  - 또한,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시장규율의 강화와 함께 국제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은 보험사의 **책임경영과 수익경영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국제보험회계기준 관련 작업반이 구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일이며, 향후 구체적인 **이슈화 작업과 실무적 영향 분석에 근거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의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제Ⅲ장에서 언급된 보험사 CEO들의 인식은 현실 경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 별 첨 1 】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과 향후 일정

- 국제보험회계기준은 2004년 3월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No. 4; IFRS 4)”로 공표됨
  - 1997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2005년 유럽공동체(EU) 적용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보험권의 반대가 심해 IASB는 보험 프로젝트를 두 단계(phase 1 and phase 2)로 분리하여 진행함.
    - 가장 논쟁이 심한 보험부채의 평가를 2단계에서 다루기로 하고, 나머지는 1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함.
    - 1단계 결과가 IFRS 4이며, 2006년 공정가치 공시를 거쳐 2007년 2단계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하여 IFRS 4를 개정하기로 함.

< 표 2 >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 경과 및 향후 일정

시기	주요 내용	비고
1997	- 보험 프로젝트 Insurance Project 개시	금융프로젝트의 일부로 시작
1999	- Issues Paper on Insurance Contracts 발간	
2001	-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on Insurance Contracts 공표	
2002	- Exposure Draft No. 5. Insurance Contracts 공표	
2004	- IFRS No. 4. Insurance Contracts 공표	Phase 1 완료
2005	- IFRS 4의 EU 지역 적용 예정	
2006	- 공정가치 공시 적용 ?	
2007	- IFRS 4 개정 ?	Phase 2 완료 ?

## 【 별 첨 2 】 용어 설명<sup>3)</sup>

- 시장가치 market value
  -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
  - 공신력 있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 quoted market value
  
- 공정가치 fair value
  - 시장을 잘 알고 자발적 거래 의사를 지닌 독립된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을 교환하거나 부채를 청산하는 금액 (the amount for which an asset could be exchanged for or a liability settled, between knowledgeable, willing parties in an arm's length transaction)
  
- 역사적 원가 historical cost
  - 자산이 취득 당시에 지급된 현금이나 현금등가액 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기록되는 것. 부채는 의무를 지는 대신 받은 수취액으로 기록되거나 법인세 등 특정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 중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액으로 기록되는 것 (assets are recorded at the amount of cash or cash equivalents paid or the fair value of proceeds received in exchange for the obligation, or in some circumstances (for example, income taxes), at the amounts of cash or cash equivalents expected to be paid to satisfy the liability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 현재가치 present value
  -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할 미래 순현금흐름을 현재시점에서 할인한 추정치 (current estimate of the present discounted value of the future net cash flows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

3) 한국회계연구원, 『재무회계용어집』, 2004.9. 참조.

### 【 별 첨 3 】 제네바학회 설문 조사

- 제네바학회는 2004년 6월 40개 글로벌 보험사를 선정하여 CEO들에게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함.
  - 제네바학회는 2002년 6월 연차총회에서 보험회계의 변화에 대비하여 특별 작업반을 구성하였음.
  - 특별작업반은 2003년 1차 국제보험회계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6월 제2차 보고서를 제시함.
- 설문은 완전한 공정가치회계의 도입 시나리오를 전제로 CEO들에게 보험사 경영에 미칠 영향을 물어 본 것임
  - 설문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기술하도록 하였음
    - 제3자가 이를 검토하여 편의가 있을 경우 질문을 수정하여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음.
    - 최종 응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논점을 분명히 확인함.
  - 17개국에 본부를 둔 40개 글로벌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응답을 받음.
    - 40개 회사들 중 26개사는 생·손보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이고, 9개사는 생명보험 전업사, 5개사는 손해보험 전업사임.

※ 제네바학회(Geneva Association; [www.huebnergeneva.org](http://www.huebnergeneva.org))의 정식 명칭은 보험경제학 국제연구회로서 세계 80여개 보험사들의 CEO들로 구성됨.  
- 현재 Huebner재단과 함께 'Geneva Paper'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음.  
- 본문 제III장의 내용은 Dickinson and Riedke, Impact of a Fair Value Reporting System on Insurance Companies: A Survey, Geneva Association, 2004에서 제시된 보험사 CEO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한 것임.

## CEO Report 2004-12

###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발행일	2004년 10월 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쇄소	유성사 대표전화 02-2268-0676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368-42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